

## UR협상 대표는 농민의

지난 25일 농림수산부는 허신행 장관 주재로 산하기관, 농수축협중앙회장, 대학교수, 일부 농민들이 참석한 UR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과거 NTC품목이라 하여 15개 주요 농산물은 수입개방을 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전략에서 쌀 외에는 개방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지는 중요한 회의였다.

사회주의경제권이 무너지면서 급속히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시장으로 개편되어 가는 추세에서 정부의 대응책 결정과정이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이 있다.

과거 UR대책 수립시에는 공청회 등 농민의 의견 수렴과 국제무역의 흐름을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은 농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국가의 경제, 사회 정책이 개개인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정책결정에는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번 UR대책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사라진 것으로 인식될 때 그 결과는 너무도 크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농축산업의 경우에도 시장의 성격과 내용이 바뀌어 가는데 농민들의 삶의 양식이 어떻게 바뀌어 가야 하는지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입개방은 거대한 다국적기업의 진출을 불가

피하게 하고 다국적기업의 진출은 우리 정부가 견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변한다는 우려 때문에 매우 위협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공격형 축산이란 구호 한마디로는 농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식품재벌들에 의해서 식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그들은 광고를 통해 또는, 주변 환경의 완전한 조정으로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을 먹도록 조정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햄버거세대의 탄생은 된장, 김치를 못먹는 아이들을 만들고, 고추장을 몰아내고, 케찹이 대신하는 등 우리의 감정과 생활스타일까지 바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자본과(자본시장의 개방도 2~3년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된 외국의 공룡과의 대결에서는 신토불이(身土不二)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이다. 공룡은 특성상 성장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더이상 잡아먹을 것이 없을 때까지 끊임없이 잡아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스스로 사망한다. 공존공생이라는 개념은 애초 걸맞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공룡과의 대결을 위해 EC에서는 르노와 볼보의 합병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은행, 자동차메이커들이 합병 또는 연합관계를 맺어가는데 얼마나 큰 또하나의 공룡을 만들어 대항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얼마전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양돈사육 상한

# 자리에 서야 한다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

이번 UR대책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사라진 것으로 인식될 때 그 결과는 너무도 크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농축산업의 경우에도 시장의 성격과 내용이 바뀌어 가는데 농민들의 삶의 양식이 어떻게 바뀌어 가야 하는지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

선을 철회한다는 발상이 나왔는데 정부의 정책이 사회, 경제적인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우리의 농축산업이 세계시장에 노출되면서 거대한 외국자본에 대처하는 길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다.

여기에 우리가 어릴 때 할머니들에게서 배운 지혜를 소개한다.

생쥐부부가 귀여운 딸을 하나 두었다. 생쥐부부는 귀여운 딸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에게 시집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생쥐부부는 태양을 찾아간다. 태양보다 더 강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태양은 대답한다. 내가 강하지만 나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름이다. 구름이 해를 가리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생쥐부부는 구름을 찾아간다. 그러나 구름도 바람에게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바람 부는대로 떠다니게 마련이다. 생쥐부부는 바람을 찾아간다. 그러나 바람도 은진미륵에게는 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아무리 세게 불어도 꿈쩍도 않기 때문이다. 생쥐부부는 은진미륵을 찾아가 사위가 되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은진미륵도 생쥐에게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쥐들이 뭉쳐 은진미륵 밑바닥을 파내면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개성과 강화는 일인들이 어찌지 못한 것도 그곳 주민들의 단결이었다. 거대한 재벌들이 연약한 소비자단체의 불매운동이나 환경단체들에 꿈쩍하지 못하는 것도 아무리 거대한 은진미륵이라도 생쥐의 단결 앞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체험으로 알고 자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이번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을 대폭 완화해서 농민들이 뭉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은 큰 희망이 아닐 수 없다.

힘없고 약한 양축농가들이 거대한 공룡과 대결하기 위해서 민주적으로 뭉치게 하는 자조금 제도를 더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UR협상 대책은 농민의 자리에서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수립되어야 개방 후의 대책도 세워질 수 있다. 